

GLOBAL PROCUREMENT MARKET

VD SPECIAL
국제조달시장
Global Procurement Market

세계는 넓고 국제조달시장은 크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국제조달시장은 시장 개척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점점 확대되고 있는 국제조달시장과 막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벤처기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는 상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제조달시장의 현황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도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보고자 한다.

정부조달협정 가입으로 조달시장 자유화

국제조달시장은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기구 등 전 세계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대시장으로 연간 5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1979년 각국의 정부조달에 있어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제정되면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이 협정에 가입하고, 1997년부터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한 상태이다.

작년 말 현재 GPA에 가입한 회원국은 총 38개국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조달시장을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들도 얼마든지 해당 국가의 기업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입찰에 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벤처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셈이다. 더구나 올해에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도 9개국에 달해 국제조달시장은 21세기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국제조달 분야는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은 반면,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은 전체 정부 예산의 8%인 591억불을 IT와 첨단 Hi-Tech 분야에 예산을 집행했으며, 2003년부터 시행한 중국의 조달시장은 지난해 400억 위안, 올해 450억 위안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유통 및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장정보 부족, 현지 네트워크 부재, 까다로운 납품절차, 기간 상 문제 등 여러 제약 요인에 부딪혀 해외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려는 방편으로서 시장개척 다변화와 수출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현지 전문 컨설팅사와 세일즈랩 등을 통해 제품평가, 경쟁력 향상 컨설팅, 마케팅 활동,

납품계약 체결 등 일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미국 현지 바이어의 반응이 좋을 경우 해외물류센터사업 수혜기업으로 우선 선정해 바이어의 납품 요청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100여 기업을 선정, 소요경비의 70% 한도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7월 1일(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지원처를 통해 신청·접수해야 하고, 자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국제조달통합시스템(www.b2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지원처 인터넷사업팀(02-769-6592, 6595, 6598 · Fax 02-769-6720 · yh1998@sbc.or.kr)

KOTRA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국내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창구는 바로 KOTRA이다. 지난 2002년부터 펼쳐왔던 지원사업을 토대로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달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FCT(미 국방부의 외국기업 조달물품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유력벤더를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또한 조달시장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의 현지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조달시장 진출 유망품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조달시장진출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이다.

☉ ● ◎ 올해 주요 추진사업

KOTRA는 조달전문 컨설팅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 현지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력기업의 미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가이드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계획. 6월 16일과 10월에는 미 국방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FCT 담당자를 초청해 설명회와 상담회를 여는 한편, 6월 28일에는 잠재적인 조달시장인 EU 조달시장의 유력벤더를 초청,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조달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 ◎ 문의 : KOTRA 본사 시장개발팀(02-3460-7225, 7227~8 / Fax 02-3460-7922) /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과장(1-201-202-857-7919) / EU(브뤼셀 무역관) 이동선 차장(0478-84-34-52)

국제조달통합시스템 (www.b2g.go.kr)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제조달시장 통합정보망으로 세계 120여 개국의 입찰정보를 하루에 1천~5천건 가량 제공한다. 협력 가능한 현지 조달기업과 에이전트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해외입찰기관별 조달내역을 분석한 정보도 게재된다.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시장조사, 정보제공, 벤더등록, 현지협력업체 발굴 및 상담, 입찰별 절차 및 지원을 온라인상에서 즉시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벤처기업의 국제조달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준다.

